

# 장백산천지

제 166 호

2010 년 4 월 30 일

금요일

## “4.25”상방은 반박해의 금자탑이다.



1999 년 4 월 25 일, 만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북경국무원래신래방사무실에 상방하러 갔다. 중공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몰럼치하게도 이 “4.25”상방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고 떠들면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윗사진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독자들, 곰곰히 생각해 보라. 중남해의 담벽은 짙은 붉은색인데 늘어선 사람들의 뒤에 있는 담벽은 회색이다. 이 어찌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레 경찰들이 이렇게 한가로히 서있을수 있겠는가? 파룬궁학원들이 표어도 들지 않고 구호도 부르지 않고 머리를 숙인채 파룬궁책을 읽고 있는데 그레 이것이 포위공격이란 말인가?

파룬궁학원들이 왜 “4.25”상방을 하게 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 중공은 거짓말을 했다. 1999 년 4 월 11 일, 하작휴(何祚庥)가 “청소년과학기술 박람”잡지에 파룬궁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4 월 18 일부터 24 일까지 일부 천진시 파룬궁학원들이 천진교육학원과 유관부문에 가서 실제정황을 반영했다. 4 월 23 일과 24 일에 천진시공안국 경찰들이 파룬궁학원들을 구타하고 45 명을 붙잡아 가두었다. 파룬궁학원들은 이 정황을 천진시정부에 알렸다. 정부에서는 북경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4 월 25 일에 파룬궁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북경국무원 래신래방사무실로 왔다. 사람이 많아서 신방사무실주위의 부우거리와 서안문 대거리까지 모이게 되어 중남해부근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날 국무원 총리 주용기(朱镕基)가 직접 파룬궁학원을 만나 현장

에서 파룬궁대표와 대화하여 폭력으로 사람을 붙잡은 천진사건을 합리하게 해결했다. 저녁에 학원들이 헤어질 때 땅에 파지 한장 없었고 경찰들이 던진 담배꽂조차 주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4.25’ 상방은 중국력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평화적이며 가장 원만한 상방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10 여년동안 중공의 잔혹한 박해속에서 옳바른 믿음으로 정의를 주장하고 진리를 견지해온 파룬궁학원들은 세인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여전히 이성적이고 평화적으로 반박해와 진상알리기에 진력해왔다. 지금 파룬궁은 112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고 있으며 각성한 7 천여만 용사들이 중공조직에서 퇴출했다. 중공악당은 거짓과 폭력으로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최후 발악해도 천멸 중공의 운명을 절대 만구할수 없다. 전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여, “4,25”정신을 발양하여 중공의 박해를 제지시키자.

### 세계각지에서 “4.25”11 주년을 기념

2010 년 4 월 25 일 직전에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대만, 미국 뉴욕, 영국, 미국 워싱턴,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러시아, 일본 등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4.25”상방 11 주년기념활동을 거행하여 세인들에게 진상을 료해하고 중공의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했다. 아래 사진은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 2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4.25”11 주년기념활동을 거행한 장면이다.



##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가?



■ 정미로운 태양계는 우연히 형성된것인가?

뉴턴은 근대 과학계에서 가장 걸출한 대표인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가의 한분이다. 그가 자연의 오묘한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해서부터 나중에 신앙의 전당에 들어서서 세인들에게 고급생명이 창조한 우주는 그렇게도 기묘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뉴턴은 《이 비할데없이 아름다운 태양, 행성과 혜성의 체계는 전능적이고 명지하며 권위가 있는 전능한 분의 계획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전능한 분은 영원히 불멸하고 어디에나 다 있으며 전능한 분의 “영존불멸”과 “어디에나 다 있는”것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뉴턴은 진일보 우주사이의 물체를 탐색하여 최초의 각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 료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느님이 처음으로 움직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몇백년 지난후, 미국의 저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어느날 몇몇 뉴스기자와 담화할때 《과학과 신앙은 근원이 같으며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사람과 물체는 한 령수가 지도하고 세계의 운명은 한 최고자가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다.》



폭로

### 연변박해소식

■ 지난 4 월 7 일, 화룡시팔가자정법위원회와 “610”사무실에서는 림업국 3 도림장에서 각 단위의 서기들을 모여놓고 등록된 파룬궁학원들을 불러다가 태도표시를 하게 하고 계속 련공하려는 파룬궁학원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포치했다.

■ 지난 4 월 15 일 오후 2 시, 훈춘시와 연길시 악경들이 연길시파룬궁학원 리춘만 (李春曼)의 집에 뛰어들어 프린트, 대법책을 몰수해가고 리만춘을 랍치하여 훈춘으로 압송했다.

■ 파룬궁학원 왕숙화 (王淑华)는 박해를 받아 지

## 옥수지진예보를 은폐했다.

사천지진예보를 덮어감추어 큰 손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4.14”옥수지진예보를 또 은폐하여 큰 재해를 입었다.

“4.14”옥수지진 직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급에 보고했지만 중공의 “온정을 수호”한다는 구실하에 압제를 당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지진자문위원회 심종배, 림명주, 조룬 등, 산서지진대 공정사 여향홍, 하남 단성지진예보원 장득량 등은 지진직전에 상급에 지진예보보고를 했지만 압제당했다.

귀주지진예측전문가 량지민은 4 월 11 일에 《80 시간내에 청해 옥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지만 인츰 봉쇄당했다.

중국지구물리학회 천재예측위원회 회원 손연호는 4 월 6 일에 《7 일부터 10 일내에 청해 옥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중국지진국과 지방, 성, 시급 정부에 보고했지만 아무 회답도 받지 못했다. 그는 또 중앙상무위원회, 국무원 사무실, 구제사무실에 편지를 띄웠지만 역시 감감 무소식이였다.

중공약당은 옥수지진구제에서 백성의 “은인”으로 변장하고 나섰지만 기실은 백성에게 재난을 가져다준 “죄인”이다.

금 정신이상에 걸려 친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고 여위여 뼈만 앙상했다.

■ 지난 4 월 28 일 오후 4 시반, 파룬궁학원 송국여 (宋国茹)는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610”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지난 4 월 29 일 아침, 연길시파룬궁학원 김향련 (金香莲)은 “610”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화룡시팔가자 파룬궁학원 양숙영 (杨淑英)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김선옥 (金善玉)은 지금 룡정시려명대학 쇠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